

2010 - 2011

송구영신예배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www.chungpa.or.kr

송구영신 예배 순서

2010년 12월 31일 저녁 11시

인도자: 김재흥 목사

조용한 기도 다함께

- 정 울 립 -

예배로의 초대 인도자

♠ 여는찬송 28.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함께

♠ 교독기도 다함께

인도자 : 시간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마음을 고요히 하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 안에서 시간과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회 중 : 한 해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웃음 속에도 함께 계셨고, 눈물 속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인도자 :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의 일꾼이 되라 말씀하셨건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회 중 : 모든 생명 하나하나를 귀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나를 내려놓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분쟁을 일으키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인도자 :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푸른 언덕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함께 : 주님, 우리가 더불어 숲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생명의 푸른 물결 넘실거리는 숲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생명 끌어안는 주님의 품과 같은 숲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함께

기 도 김재흥 목사

응답송	찬양대	
돌아봄의 시간	영상물 시청	다함께
♠ 천국말씨 나누기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다함께
성경봉독	시86:8-17	인도자
찬양		찬양대
말씀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김기석 목사
찬양	552(통358). 아침 해가 돋을 때.....	다함께
함께드리는기도		다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해가 되길 바라며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위하여

- 정 울 림 -

성찬식	집례: 김기석 목사	
성도의 교제	다함께	
특송	희망	장성호
♠ 파송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다시 한 번, 귀한 한 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사십시오. 사랑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따라 사십시오.	
회중:	주님의 은총을 덧입어 새해 첫발을 내딛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동행이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멘.	
♠ 주기도문 송	다함께	
♠ 축복	담임 목사	

♠ 표에서 회중은 일어남 (일어서기 어려운 분들은 앉아서)

▣ 성도의 교제

1. **신년감사** : 201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2. **다과나눔** : 친교실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3. **원단산행** : 1월 1일 원단산행을 삼각산으로 갑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1일 오전 9시 20분까지 교회로 오십시오. 아이젠, 따뜻한 물과 도시락을 준비해 오십시오.
4. **신년주일** : 1월 2일은 청파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신년주일에배로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없습니다. 오후집회는 3남 · 5여 선교회 주관 예배로 드립니다.

희 망

- 꿈이 있는 자유

우린 만나며 살지 수많은 도전들을 그 높고 높은 파도 속에 우린 완성된다네
우린 배우며 살지 수많은 실패들을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건 끝이 아니야
우린 다시 시작해 바로 그 끝점에서 다시 써내려가는 거야 희망의 얘기를
우린 믿으며 살지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진실은 변함없는 거야 우린 그걸 노래해
우리 앞에 둘러진 어둠이 깊어갈수록 우릴 향해 떠오를 새벽은 다가온 거야
우리 목을 태우는 갈증이 더해갈수록 우린 작은 것들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네

수많은 도전과 시련들 그 속에서도 결코 놓쳐선 안 될 희망이 있다네
몰아치는 바람과 쏟아지는 그 빗속에서도 결코 내려선 안 될 깃발은 있는 것
수많은 얘기들이 절망을 말해도 우리가 지켜가야 할 희망이 있지
수많은 노래들이 거짓을 말해도 우리가 불러가야 할 노래가 있네
사랑의 노래 생명의 노래 희망의 노래